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마음은 우리 안에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는 죄성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 그 즉시 모든 것이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우리가 두 가지 목적 곧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하면 언제나 곤경에 빠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인은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따라서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면 잠잠히 기다리든지 아니면 왜 평강이 임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영웅심에서 행동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임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확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진실한 영은 우리의 결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진심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순종을 멈출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계시에 놀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문제는 언제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문제가 아무리 많더라도 단지 천국의 기쁨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개별성과 인격성의 차이

오늘 묵상을 시작하며 챔버스가 처해있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을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염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이미 1월 3일 ‘구름과 흑암’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했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던 때에 챔버스는 자신이 이집트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챔버스에게 ‘순종’의 문제는 아주 실존적인 상황에서 직면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평강을 경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의 단락에서 세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 가운데서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일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구해 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목적 곧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섭기려 하면 언제나 곤경에 빠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자체보다는, 곤경 가운데서 놓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

혹시 삶에서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챔버스는 그동안 묵상 글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충동’과 ‘영웅심’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평강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인은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프랑소와 페忸롱의 [내어드림]이라는 책에 ‘평강’에 대한 구절이 있어 소개합니다.

당신은 살면서 하나님께 안식과 평안을 구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갈급함에 하나

님께서 생수의 균원으로 인도하셨을지라도, 당신이 마시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안식과 평안은 단순한 순종이라는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은 우리의 결심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결정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평안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셋째, 의심이 생기는 이유

두 번째 주제에서 순종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심의 문제는 ‘순종의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 반복되면 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순종을 해도,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삶은 늘 곤고한 것일까요? 아무리 순종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온다면 과연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챔버스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계시에 놀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늘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묵상의 원 제목이 “위대한 삶” (The great life)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해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순종할 때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갑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점점 더 위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를 거듭하여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가장 위대한 인생은 늘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묵상 질문 문제가 찾아왔을 때 평안을 구합니까, 순종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까?

묵상레시피 | 여호수아 9:14-16, 10:1-15 + 요한복음 14:27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9:14-16)

이 일로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를 겪게 됩니까? (10:1-7)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문제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0:8)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떤 승리를 경험합니까? (10:9-15)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9:14)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진군 소식을 듣고 생명을 구하려고 꾀를 낸다. 기브온은 사실 큰 도시였고 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도시였다(10:2).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두려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상호간의 화친은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스라엘로서는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다. 그들은 앞선 승리와 기브온 족속의 행색으로 인해 충동적이고 영웅심에 사로잡힌 행동을 했다.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10:4)

이 소식을 들은 다섯 왕과 그들의 연합군은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 기브온을 치러 온다. 주변 도시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 사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은 자로서 참전 하여 그들을 도와야 했다. 하나님의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이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뼈아픈 실수를 인정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다음 행동을 묻는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10:14)

하나님은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켜 듣고자 하는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밤새 진군하여 기습하게 하셨으며(7-10절), 자연의 힘(우박, 11절)과 초자연적인 힘(12-13절)까지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도우셨다.